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세종시 벤치마킹



인도네시아 공무원 일행이 행복도시를 찾은 모습 (사진=행복청)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찾아 바람직한 수도이전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일행 32명이 이날 행복도시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수도이전 추진을 계기로 신도시 건설 선진사례인 행복도시의 도시개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방문단은 행복도시 홍

보관, 정부세종청사 등 주요 시설 등을 둘러보며 행복도시

발전과정을 눈으로 확인했다. 방문단은 행복도시 홍보관에

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행복도시 건설 추진경위, 도시계획 수립 체계 등 도시건설 전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획득해 국제표준으로 선정된 행복도시 사례가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건설에 접목될 경우 큰 동반상승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도 이전을 공식화했다.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경제와 산업 중심지로, 신 수도인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주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역할을 분산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2기 내각의 핵심과제인 수도

이전 사업은 약 40조 원을 투입해 자카르타의 과밀화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형욱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한국형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사례가 향후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과정에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 공무국의출장단(단장 안승대 기획조정관)은 앞서 지난 9월(25일~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수도 이전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갖기도 했다.

[세종의소리]

인니 지자체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월 4백만 루피아 넘는 곳도

인도네시아 전국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주요 지역으로 수도 자카르타의 서쪽 반튼주와 제2도시 수라바야가 위치한 동부 자바주가 20일까지 지역최저임금(UMK, Upah Minimum Kota)을 결정했다. 인상폭은 중앙정부가 앞서 결정한 8.51% 수준에 부합하는 지자체가 많

다. 이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부 자바와 반튼주를 비롯한 다섯 개의 자치 단체에서 월 4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

동부 자바주는 20일, 주 내 38개 시·군의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상폭은 앞서 노동부가 설정한 8.51%에 부합했다.

이날 국영 안파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폭이 가장 금액이 큰 지역은 수라바야로 월 420만 479루피아였다. 가장 낮았던 곳은 마두라 섬의 삼팡(Sampang) 지역 등 9개 지역으로 191만 3,322루피아였다.

반튼주도 19일자로 주지사령 ‘2019년 제561/320호’를 공포하고 주 내 8개 시·

군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인상폭은 세랑 만이 12.1%였으며, 기타 7개 지역은 8.51%로 했다.

이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쥘레콘으로 월 424만 6,081루피아가 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르박으로 271만 654루피아였다.

KOREAN PROMO 2019

MODERN GOLF & COUNTRY CLUB

주 중	IDR 575.000	Include Cart
토요일 오후	IDR 1.700.000	Include Cart
	IDR 1.460.000	Walking
일요일 오후	IDR 1.500.000	Include Cart
	IDR 1.260.000	Walking

*Valid for Korean only.

*Valid until 31 December 2019.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applied

BUY 1 PITCHER GET 1 FREE PITCHER

BUY 3 GLASSES GET 2 FREE GLASSES

BINTANG BEER PROMO*

WEEKDAYS PROMOS!

BUY 4 PAY 3 ITEM FOOD

*Price is subject to 21% of government tax & service charge

*All promo Valid on Weekdays only

*Terms & conditions applied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contact +6221 552 9228 marketing@modern-golf.co.id www.modern-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golf_countryclub

현대차, 인니에 1조8천억 車공장 ... 일본차 아성 공략 나선다

아세안 첫 공장 내달 착공...조코위 “투자 꼭 성공해 차 선택폭 넓혀달라”
자카르타 근교 브카시 77만6천㎡ 부지...2년후 연산 15만대→25만대 확대
관세·비관세 장벽 넘어 인도네시아·아세안 진출 위한 ‘전초기지’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1조8천억여원을 투자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는 최초로 완성차 공장을 건립한다.

자동차 신흥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를 직접 공략하면서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현대차는 26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현

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대차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아세안 지역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브카시시(市) 델타마스 공단에 들어선다. 부지 면적은 약 77만6천㎡다. 델타마스 공단에는 이미 일본 자동차사인 스즈키와 미쓰비시가 진출해 있다.

총투자비는 15억5천만달러(약 1조8천230억원)이며 이는 2030년까지 제품 개발 및 공장 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현대차는 다음달 착공식을 하고 2021년 말 생산을 시작해 연간 15만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향후 최대 생산능력을 25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 차종은 아세안 전략 모델로 신규 개발하는 ‘B-SUV’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와 ‘B-MPV’ (소형 다목적차량) 등이며 아세안 전략 모델로 개발하는 전기차 생산도 검토한다.

완성차 생산과 별도로 연간 5만9천대 규모의 ‘CKD’ (반제품 조립) 수출도 계획 중이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역내로 수출할 예정이다. 호주, 중동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 결정이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아세안 신시장을 개척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아세안 각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쳐 놓은 고율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는 생산거점이 된다.

또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직접 공략하면서 2026년 약 45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세안 주요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도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작년부터 두 차례 직접 만나 자동차 공장 건립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월 인도네시아에서 정 수석부회장을 만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현대차가 인도

네시아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꼭 성공해 달라”며 “필요한 지원을 다 하고 직접 챙기겠다. 한국 방문 때도 현대차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투자협약식 직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수소전기차 공기정화, 넥쏘 절개차, 코나 일렉트릭 절개차 및 무선충전시스템, 웨어러블 로봇, 전동 키보드 등 시설을 둘러봤다.

그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일본차 중심에서 현대차까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된다”며 “현대차의 투자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완전 무공해인 수소전기차와 전기차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명예사원증을 증정했다. [연합뉴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현지 온라인 교육기업과 전략적 업무협약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현지 온라인 교육 전문기업 인코르(Inkor)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신한은행이 26일 밝혔다.

인코르는 온라인 취업 교육과 직장인 재교육 업체로, 인도네시아 최초로 사이버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 내년 2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협약에 따라 펌뱅킹을 활용한 수강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수강생을 대상으로 ‘신한 솔(SOL) 인도네시아’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



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사이버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인코르와 협업해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고객의 마음을
흡치겠습니다!





▲ 땅그랑반튼한인회 채만용회장

지난 29일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회장:채만용)는 창립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땅그랑반튼한인회 10년사와 지역 한인동포를 위한 한인기업정보 및 생활가이드 두 권의 책을 출판하고 10년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보존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창립 10주년 출판기념회는 매년 실시해 오던 한인의 밤 행사를 대체하기로 하고 조용한 가운데 새로운 미래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행사로 땅그랑반튼한인회 4기에 들어 야심차게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종민 총영사를 비롯해 코린도그룹 승은호회장, 코참 송창근회장, 뿌라따마 서영률회장, 파크랜드 광국민 부회장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출판취지와 배경의 설명에 이어 그간 10여년간 땅그랑반튼한인회를 위해 애 써주신 모든분들의 자축연의 행사로 이어졌다.

땅그랑반튼한인회 10년사는 타 국가, 타 한인회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약 10개월간 수집하고 정리해 출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활동에 대한 사실적 표현과 근거를 찾아내는 숭한 고초와 어려움속에서 발행되었다.

채만용회장은 다가오는 10년을 위한 준비는 지난 10년의 활동을 어떻게 보존하고

땅그랑반튼한인회 창립 10주년 출판기념회 열려 지난 10년의 흔적을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승화시켜



▲ 땅그랑반튼한인회 창립10주년 및 출판기념회에서 축하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 땅그랑반튼한인회 역대회장의 기념건배사



▲ 서영률회장과 김영주교문의 감사패 증정



계승해야 하는가에 달렸다고 했으며 땅그랑반튼한인회의 차세대 동포에게 주옥같은 봉사정신을 이어가는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했으며 승은호회장은 언제나 푸근함을 느끼



는 땅그랑반튼 한인회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언덕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동포의 한 사람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그간 땅그랑반튼한인회를 위해 조용히,



꾸준히 지원해 준 뿌라따마 서영률회장과 백두회 김영주 고문님의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땅그랑반튼한인회는 2010년 초대 이세호회장을 시작으로 하연수 2대회장, 오세명 3대

회장을 거쳐 현재 4기로 이어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보기도 문 탄탄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고 그중 현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수넛탄 행사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가정의 날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한인동포를 위한 문화강좌를 상시 열어 한인동포의 문화적인 혜택에도 소홀함 없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4기에 들어 한인회는 우리 동포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찾아가는 한인회라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있어 땅그랑반튼한인회의 미래는 더욱 더 밝고 신선하게 우리동포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본다.

미디어코리아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구명조끼,수영보드,헬멧 및 장갑,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 toilon.co.id



최태원 동남아 공략 가속화 ... SK, 인니 산업부장관과 회동

19일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스미따 장관 방한
SK, 인니 투자 확대 요청 직접 언급



▲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스미따 신임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하기 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매일뉴스]

SK그룹 수뇌부가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난다. 최근 SK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공략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번 회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스미따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 SK그룹을 방문한다. 구체적인 회동 장소와 참석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임 장관과의 회동인 만큼 최태원 SK 회장과 그룹 수뇌부가 참석할 전망이다.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스미따 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달 23일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이다. 이 자리에서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스미따 신임 장관은 SK에 투자 확대 요청과 함께 물론 산업역량 강화 기대감을 내비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스미따 장관은 방한에 앞서 현지 언론을 통해 “SK와 만나 투자 요청을 할 것”이라며 “SK는 한국의 3대 기업일 정도로 큰 기업이지만 아직 인도네시아에는 생산 활동이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투자를 강화하는 SK 입장에서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스미따 장관과의 회동은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산업을 총괄하는 정책 책임자를 만나 투자 지원 등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는 빈그룹 투자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베트남 1위 민영기업 ‘빈그룹’에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를 투자하고 지분 6.1%를 확보했다. 양사는 향후 현지 시장에서 신규 사업 투자는 물론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와 전략적 인수합병(M&A)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SK주와 이노베이션,

텔레콤, 하이닉스, E&S 등은 지난해 8월 동남아 투자 플랫폼인 ‘SK동남아투자법인’을 설립,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법인은 빈그룹에 앞서 베트남 시총 2위 민영기업인 마산그룹의 지분 9.5%를 4억7000만 달러(약 5300억원)에 매입해 현지 지출을 시작했다.

SK 관계자는 “그동안의 동남아 진출방식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 확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강화와 사회적가치 추구 등을 함께 한다”라고 설명했다.

[매일뉴스]

부패방지위원회, PLN 전 사장 무죄 판결에 불복 ... 대법원 항소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소피안 바시르(Sofyan Basir) 전 국영 전력 PLN 사장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KPK는 18일, 리아우주 ‘석탄화력발전소(PLTU) 리아우 1’

건설 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건에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소피안 피고에 대해 부패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19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KPK의 대변인은 “부패법원은 피고가 일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프로젝트 진전에 힘을 실어준 점 등 KPK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며 “기소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KPK는 지난 15일 항소 절차를 취했다.

앞서 지난 4일 중앙 자카르타의 부패법원은 “소피안 피고가 부패 행위를 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소피안 피고는 발전소 사업에 출자하는 블랙 골드 내추럴 리소스(Black Gold Natural Resources)의 주주 요하네스 꼬조(Johanes Kotjo) 피고가 골까르당 의원 이드루스 마르함(Idrus Marham)과 에니 마울라니 사라기(Eni Maulani Saragih) 피고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3명과 PLN 이사들과의 회의를 설정하고, 블랙 골드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소피안 피고는 뇌물을 받지 않지만, 일련의 뇌물 사건에 연루된 피고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금전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훅 전 자카르타 주지사, 국영 기업 경영 참여 가능성 시사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국영기업부 장관의 호출을 받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 안파라 통신의 보도에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훅) 전 자카르타특별주 지사가 국영 기업의 요직에 취임할 것을 시사해 주목된다.

아훅 전 주지사는 지난 13일

따르면, 아훅 전 주지사는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아훅 전 주지사는 13일 오전 자카르타 국영기업부에서 에릭 장관과 약 1시간에 걸쳐

회담한 후 떠났다. 기자들에게는 “국영 기업 1개사의 경영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훅 전 주지사는 국영 전력 PLN(PT PLN) 또는 국영 광업 지주회사 인도네시아 아사한 알루미늄(PT Asahan Aluminum, 이날룸)의 사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아훅 전 주지사는 2017년 자카르타특별 주지사 선거 전연 연설에서 이슬람을 모욕했다며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고객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국민카드, 인도네시아 진출... 현지 여신전문금융사 인수

국민카드, 인도네시아 진출...현지 여신전문금융사 인수



KB국민카드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국민카드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여신금융전문회사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PT Finansia Multi Finance)’ 지분 인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국민카드가 이번에 인수한 회사는 현지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내구재 할부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국민카드는 2개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 80%를 8천128만달러(약 950억원)에 인수한다.

199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총 자산 3천251억원, 자기자본 632억원, 임직원 9천800여명 규모의 중형 업체로 최근 5년간 평균 50억원의 당기순이익

을 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137개 지점을 보유하는 등 광범위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할부금융 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국민카드는 설명했다. 여신취급액 기준으로 오토바이 담보 대출과 내구재 대출은 업계 3위, 자동차 담보 대출은 업계 5위 수준이다.

국민카드는 금융 당국의 승인 절차와 인수통합작업(PMI) 등을 거쳐 내년 초 해외 자회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본사의 지급보증 등으로 조달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고, 할부금융 상품을 확충해 우량 자산 중심의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딜러를 중심으로 영

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영업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카드가 가진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디지털 역량을 이전해 할부금융 사업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카드 사업도 시작해 소비자 할부 금융에서 신용카드에 이르는 초대형 종합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의 부도은행을 필두로 KB손해보험, KB캐피탈의 현지 법인과 협업하는 등 KB금융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시장 조기 안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금융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신 비율이 낮아 향후 두 자릿수 이상의 여신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캄보디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해외 진출 성공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원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경제통상 협약



▲ 창원시-인도네시아 상의 경제통상 업무 협약(창원시청 제공)

경남 창원시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프로그램 참석차 방한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일행을 26일 시청으로 초청해 경제통상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용끼 수기아르토 인도네시아 상의 한 국위원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원시

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경제 통상 분야 포괄적 협력을 시작으로 문화·관광·교육 등 전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무역사절단을 보내는 등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하나 선교 교회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곁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임이 됴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 매주수요일 저녁 7시

담임목사 : 김덕수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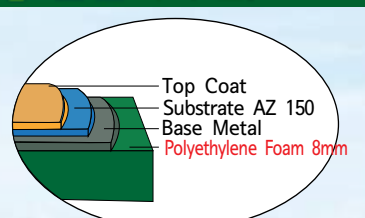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대국으로의 꿈



▲ [아세안익스프레스=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대국을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칼리만탄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4월 대선에 승리해 연임이 확정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도네시아 군도 중심에 위치한 칼라만탄 섬에 수도를 옮기겠다고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어 지난 6월 28일 동부칼리만탄 주 발릭빠인근에 있는 2개 군에 행정수도를 확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경제 대국으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매킨지 등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인도네시아가 2030년에 세계 7대, 2050년에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채취임식에서 “우리의 꿈은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빈곤율 0%에 근접한 세계 5위 경제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자카르타 도시 문제와 자바섬 서부에 집중된 경제개발로는 경제대국으로 가는데 충분한 동력을 얻기 힘들다.

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가? 자카르타 수도 이전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의 기능 상실이다. 지반침하, 심각한 수질과 대기 오염, 교통 인프라 부족,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경제력 편중 등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상수도 보급률이 60%에 불과한 자카르타에서는 기업과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개발해 지반이 매년 평균 7.5cm씩 내려앉고 있으며, 여기에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엿친 데 덮친 격’이다. 현재 자카르타 전체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고, 오는 2050년에는 저지대 비율이 90%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방조제를 쌓아 물난리는 막을 수 있지만, 지반침하가 계속된다면 도로 균열, 건물 붕괴, 수도관과 가스관 등 인프라 시설 파괴가 불 보듯 뻔하다.

국가개발기획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60%가량인 1억6천만 명이 본섬인 자바섬에 거주하고 있고, GDP의 3분의 2를 자바 섬이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자바 섬의 산업시설은 주로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 1천만 인구의 자카르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1천만 명 가량의 유동인구로 과포화상태가 돼 차량 운행속도가 평균 시속 10Km 이하로 떨어지는 교통지옥으로 변한다. 자카르타의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억 달러이며, 대기오염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홍수, 지진, 쓰나미 및 화산 등 자연재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파란만장한 자카르타 역사 올해로 정도(定都) 492주년을 맞은 자카르타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 14세기 무렵 자카르타는 빠자자란 왕국의 항구였으며, 당시에는 순다플라빠(Sunda Kelapa)라고 불렸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이 점령했지만, 1527년 파타힐라 장군이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승리의 도시’라는 뜻의 자야카르타(Jayakarta)

로 개명한다. 16세기 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자야카르타를 점령하고 1619년에 바따비아로 이름을 바꾼다. 이후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후, 자야카르타를 줄인 자카르타로 개명했고, 1956년 인도네시아 국회는 파타힐라가 순다플라빠를 탈환한 날인 1527년 6월 22일을 자카르타 정도일로 확정했다.

자카르타 수도 이전 추진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시대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시대부터 추진됐다. 꼬따뚜아(Kota Tua)로 불리는 자카르타 구도심은 저지대이며 주변 지역이 늪지가 많고 풍토병이 빈번히 창궐해 원주민은 물론 네덜란드인과 도시건설에 대거 투입된 화교들의 생명까지 앓아갔다. 19세기 초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헤르만 윌리엄 다엔텔스 총독은 행정수도를 반둥, 경제수도를 수라바야로 확정하고 이전하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식민 잔재를 청산하다는 이유로 중부칼리만탄 주의 빨랑까라야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무산됐다. 그리고 수하르토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도 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동부칼라만탄을 선택한 이유는 조코위 대통령은 동부칼리만탄과 중부칼리만탄 빨랑까라야 지역 등 2개 지역을 저울질하다가 동부칼리만탄으로 낙점했다. 수도 이전지로 확정된 북부 빠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 군과 꾸따이 카르파느가라(Kutai Kartanegara) 군은 발릭빠인 시와 동

부칼리만탄 주도 사마린다 시 등이 주변에 있으며, 두 도시에는 국제급 공항과 항구는 물론 두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깔려 있다. 마하강 강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홍수와 지진 화산, 연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 이전 반대 목소리도 높아

지난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된 현 국회가 여대야소로 구성되어 있고, 제1 야당인 그린드라당이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조코위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정 운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언제든 야당 세력이 다시 규합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반대와 항공기로 자카르타에서 2시간 걸리는 동부칼리만탄으로 이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다. 법률 개정과 예산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다. 더욱이 행정기능을 새 수도로 옮겨도, 자카르타는 경제중심지로 남을 것이기에 여전히 자카르타의 도시 문제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새 수도 이전 효과는 정부는 2020년까지 새 수도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작업을 진행해 조코위 2기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어느 정도 천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도시는 스마트 도시(Smart City), 녹색도시(Green City)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원칙에 따라 부지 주변의 녹지를

보전할 방침이다.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또는 바이오매스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 수도 건설 비용은 약 33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0% 정도만 정부예산으로 조달해 토지매입, 기초 인프라, 공무원 관사, 군경 시설 건설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비용의 20%라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히 계획 완료 시까지 매년 재정적자 폭을 0.7%씩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카르타에 위치한 정부 소유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비용의 55%는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 형태로 마련한다. 국내외 기업에 모두 문호를 개방하되 현지 기업과 국영기업에 가점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컨소시엄 등 현지기업과의 제휴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마련하여 관사 이외의 공공주택, 대학 등 교육시설, 공항·항만·유료도로 건설과 개선, 의료시설 건설, 쇼핑몰 등 상업시설 건설 등에 총당한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발빠르게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금융기관들의 참여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수도 이전과 우리와 협력 분야

새 행정수도는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시티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 스마트시티 협력에 적극적인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도 잔결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한국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공식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건설은 국영 건설회사 후타마 카르야(Hutama Kary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 사업은 물론 자카르타 북부 방조제 사업과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해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인니 건설시장 진출 박차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한국 건설업계의 현지 시장 진출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국내 건설토목 업체들은 1970년대 인도네시아에 주택 사업으로 처음 진출했고 이후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기업들이 선도적으로 현지 정부와 긴밀한 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 자카르타에 사업단을 설치했고 현재 8명의 직원이 상주 중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자카르타 경전철(LRT) 1단계 사업 시스템 분야에 일부 참여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2단계 사업 프로젝트 계획수립(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등 사업 전체 총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을 받은 김 장관은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급파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조율해왔다.



▲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지인 동칼리만탄주 세파쿠[EPA=연합뉴스]

주택 · 댐 · 경전철 사업에서 수도이전 개발로 영역 확대

대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분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진출에 적극적인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 공적 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자바섬 반텐주 까리안뎀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0억원 규모(13건)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까리안뎀 공사는 2015년 10월 착공했고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댐 공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뢰를 얻어 작년 4월 공공주택 사업부에 장관 자문관을 공식 파견해 수자원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공사는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수력발전, 상수도 구축, 정수장 건립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수력발전에서는 하상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기술자문과 운영관리에 참여했고 봉카 수력발전 사업을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까리안뎀을 수원으로 해 자카르타와 수도권 2개 도시에 하루 40만㎥ 규모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궤도 수주하는 등 현지 철도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더해져 인도네시아 정부와 신뢰 관계가 형성돼 대형 국책 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까지 진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협력 방안은 올 6월 바수키 하디물요노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이 방한해

국토부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의제들을 점검하고 법령 등 인도네시아의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와 수자원공사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직원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동반진출도 모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대통령 궁은 세빠꾸 지역에 건설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 국민주택부 장관은 20일, 동부 깔리만탄주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북 뽀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군의 세빠꾸(Sepaku) 지역에 대통령 궁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수끼 장관은 “국가개발기획부(바빠나스, Bappenas)과의 조사 및 검토를 거듭한 결과, 대통령 궁은 탄광이 없는 장소에 건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새 수도 이전지에 대해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북 뽀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까르타느가라(Kutai Kartanegara)군 일부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조꼬위 대통령은 이달 초에는 새 수도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

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니 샤리아 경제 페스티벌, 22.6조 루피아 사업 성약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7일, 지난 12~16일 중앙 자카르타 스나얀에 위치한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경제 페스티벌(ISEF□Indonesia Sharia Economic Festival) 2019’에서 사업 거래의 교역량이 총 22조 6,300억 루피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73개의 전시 및 공급 업체 163개사, 바이어 30여 명이 상담을 실시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 교역량은 인도네시아가 샤리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ISEF에서는 이 외에도, 기부 경매의 낙찰 금액이 29억 5,000만 루피아, 할랄(Halal: 이슬람 계율에 허용된 것) 제품의 판매액이 298억 루피아에 달했다.

빨라빠링 8천km 추가 연장... 신수도 동부 깔리만탄도 경유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엑세스국(Bakti)은 국내 전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정비하는 빨라빠링(Palapa Ring) 통신망 사업을 더욱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8,000km 연장한다.

국내를 서부, 중부, 동부 세 지역으로 나누어 정비한 기존의 통신망에서 연결한다. 동부 깔리만탄주로 결정된 신수도도 경유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엑세스국의 아낭 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서부 깔리만탄 싱가포르에서 신수도를 경유해 파푸아까지 연장한다”라고 말하며 “내년에 건설을 시작할지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빨라빠링 사업은 지난해 서부와 중부가 운운을 개시한 데 이어 남아 있던 동부 통신망이 8월에 완성된다. 3개 지역 통신망의 총 연장은 1만 2,148km이다. 이 중 서부가 2,275km, 중부가 2,995km, 동부가 6,878km이다.



韓 조선·방산 30개사, 발리서 아세안 7개국 대상 세일즈 제1회 한·아세안 Maritime Week 행사...판로 개척 주력



▲ 韓 조선·방산 30개사, 발리서 아세안 7개국 대상 세일즈[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의 조선·방산기업 30개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7개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에 나섰다.

21일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에 따르면 ‘제1회 한·아세안 Maritime Week’ 행사가 20~21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렸다.

이는 지난해 출범한 한·아세안 조선해양 공동체의 첫 번째 정례행사로, 한국의 조선·방산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미얀마·태국·싱가포르 등 7개국을 상대로 세일즈를 벌이는 자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와 함께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해양대학교 LINC+사업단 등이 주관했다.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보다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판로개척에 박차

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선협회장이 자국의 조선·해양·오일가스·방산 현황과 협력방안을 발표하는 등 참가국별 기초발표를 했다.

이어 ▲ 조선소 현대화 ▲ 해양플랜트 ▲ LNG 플랜트 ▲ 폐수처리 플랜트 ▲ 방탄·고속정 및 군함 ▲ 조선해양기자재 등 분야별 세미나가 계속됐다.

특히 한국과 아세안 7개국 조선해양방산 협회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둘째날인 이날은 한국기업 30개사와 아세안 바이어 60개사 간에 기자재 수출 상담, 협력 의제 발굴 등이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DSEC, STX, 포스코인터내셔널, S&SYS,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휴먼중공업 등이 참가했다.

바이어로는 인도네시아 퍼르타미나, 필리핀 R< 조선소, 태국 Cuel 등이 참여했고,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필리핀 해양청, 미얀마 에너지국 등 정부 기관에서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조선·방산 업체들은 매년 ‘Maritime Week’ 행사를 개최하며, 내년 개최지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정해졌다.

[연합뉴스]

인도모빌 자회사, 한국 기아차 판매 개시... 4개 차종 취급



인도네시아 자동차 대기업 인도모빌 속세스 인터내셔널(PT Indomobil Sukses Internasional)은 이달 13일 합작 자회사 크레타 인도 아르타(PT Kreta Indo Artha, 이하 KIA)를 통해 한국의 기아자동차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우선 시티카 피칸토(한국명 모닝), 소형 해치백 리오, 다목적 차량(MPV)그랜드 세도나(한국명 카니발), 상용 트럭 Big-UP K2700(한국명 봉고3) 등 4개 차종을 취급한다.

현재까지 24개의 대리점 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로 자카르타 수도권과 동부 자바 수라바야, 말랑, 중부 자바 수라카르파(솔로), 스마랑, 북부 수마트라 메단,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 등의 도시로 전개한다. 향후에는 자바, 수마트라 이외의 지역에서의 전개도 검토하고 있다.

KIA는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시장이며,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실적을 살려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판매 뿐만 아니라 24시간 수리 서비스 등의 애프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KIA는 인도모빌이 60%, 나머지 40%는 사리미트라 쿠수마 에카자야(PT Sarimitra Kusuma Ekajaya)가 출자한다. 지난 5월 한국의 기아자동차에서 공식 총판으로 지정했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학습 시스템 확대...교사 트레이닝 우선시 돼야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기술 기반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교사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학습 방법에 대해 배우고 수업에 이를 적용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연합교육부장관기구개발학습센터(SEAMOLEC)의 알파 이사는 “모든 교사들이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하나이다”라고 언급했다.

알파 이사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교사 훈련

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가상훈련(VCT) 프로그램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 교사들에게 인기 있다. 퇴근 후 스마트폰을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 참가자

들은 모든 수업을 이수한 후 수수료증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가상훈련은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와 동남아교육부장관기구(SEAMO), 동남아연합교육부장관기구개발학습센터(SEAMOLEC)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국 약 3,000명의 교사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아세안 진출 금융사 점포 150개...7년반만에 두배로 급증

아세안 진출 국내 은행, 국내보다 높은 총자산순이익률

○ 아세안 진출 우리나라 은행은 국내에 비해 높은 ROA 실현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수익성 ('18년, %, 금감원)>

	한국	베트남	인니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ROA	0.56	2.05	1.37	0.77	1.76	2.01	1.15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 연합)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점포 수가 7년 반 만에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배포한 ‘아세안 지역 금융 분야 협력 성과와 주요 특징’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점포는 올해 6월 기준 15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말(78개)보다 92% 늘어난 수치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점포 가운데 아세안 지역 자산 비중

(2018년 말 기준)은 전체의 약 14%였지만, 수익 비중은 약 30%였다.

2018년 말 기준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2.0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캄보디아(2.01%), 미얀마(1.76%), 인도네시아(1.37%), 필리핀(1.15%), 싱가포르(0.77%) 순이었다.

6개 국가 모두 한국에서 영업한 국내 은행의 ROA(0.56%)보다 높았다.

국내 금융사는 아세안 지역

에 은행업권뿐만 아니라 비은행(non-banking) 금융사 설립,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해외 사업을 다각화해 진출하는 전

략을 취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사무소나 지점보다 현지 법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현지화 확산 경향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아세안 진출 국내 은행의 현지 대출 규모는 약 167억달러(올해 6월 말)로 2015년 대비 92% 늘었고, 기업 대출이 약 8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현지인 및 현지 기업 관련 대출은 약 100억달

리로 총대출금의 65%를 차지해 현지화가 점차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아세안 지역이 한류에 우호적인 점을 활용해 한국계 문화 콘텐츠와 한국 소비재 기업과 연계한 신용카드·리테일 사업 등의 영입이 활성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아세안 금융당국과 금융협력을 강화해 국내 금융사의 아세안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아세안 국가의 금융 제도·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힘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스즈, 운행 관리 시스템 ‘미마모리’ 탑재 차량 인니서 천대 이상

이스즈 자동차의 운행 관리 시스템 MIMAMORI(미마모리)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 인도네시아에서 1,000대를 넘어섰다.

미모모리는 차량의 운행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물류 효율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다. 탑재

차량은 매년 약 20% 증가하고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스즈의 인도네시아 법인 이스즈 아스프라 모터 인도네시아(IAMI)의 요하네스 법인은 “미마모리를 탑재하면 연비 향상, 클러치와 타이어

의 열화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형 트럭 ‘기가(Giga)’ 등에 탑재되어 있다.

한편, IAMI 교육센터 부문장은 “물류 기업의 사업비 중 40%를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연비 효율의 향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한인니문화연구원 10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가장 깊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문학상 제10회 시상식이 11월 23일 갤러리 인도네시아 까야(Galeri Indonesia Kaya)에서 열렸다. 한인니문화연구원이 한국인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인터넷 문학상은 어느덧 올해 제 10회를 맞이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 벨라루스, 캄보디아, 모로코를 포함한 각국의 대사관과 마르타 띠라아르(Martha Tilaar)그룹대표, 그랜멜리아대표 등, 인도네시아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슬람문화단체 등 연구원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가, 그리고 중국 여성협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을 넘어 참석한 세계인 모두에게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예술의 화합과 공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상식 1부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2부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다. 짝사랑의 슬픔과 애도함을 절

규한 바타지역 포크송 “Alsui Au” 공연으로 시상식의 문은 활짝 열렸고,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님의 축사와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님의 격려사에 이어 본격적인 수상자들이 시상식을 하였다. 자카르타한국학교장, 코이카인도네시아사무소장, 주아세안대표부에서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다.

약 150여 편의 공모작 중 일반부 12편, 학생부 13편이 심사위원 (최준 시인, 이덕주 문학평론가, 배동선 작가, 채인숙 시인)에 의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은 생활수기, 수필, 소설, 시로써 인도네시아에 살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했다.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하리 다르소노 (Harry Darsono), 만화예술가 밤비 밤방 구나완 (Bambi Bambang Gunawan), 유화화가 본단 수리아닝티아스 (Bondan Suryaningtyas), 브타위문화단체, 물따 돌리박물관, 위다안도 갤러리, 에드윈 갤러리, 인한친선협회가 시



상자로 초청되어 수상작을 시상,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고자 한 수상자들의 노력의 결실을 격려했다. 사업가는 세상을 한 발 앞서고, 시인은 세상을 두 발 앞선다는 말이 있듯 한인니문화연구원의 10년 시간의 꾸준한 헌신과 노력이 문화와 예술의 불모지인 인니 한인사회에 뿌리를 심고 단단한 자리 매김을 하였다는 것을 이번 행사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공연 전부터 시상식장이 뻘뻘하게 가득 찼고 2시간의 공연 내내 여분으로 준비한 좌석까지 부족했



는데, 이 또한 한인니문화연구원의 활동과 공헌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세계 각국의 관심과 역량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의 관심이 주목된 시상식 사이사이에는 축하공연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전통 춤과 악기연주가 번갈아 진행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꽃을 피웠다. 특히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한인 무용단이 선보인 우아한 부채춤사위와 국악사랑의 오묘한 대금—가야금 합주는 시상식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관객들은 무용단의 아름다운 표현을 카메라로 담아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한 편 2011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로 지정된 수마트라 아체 (Ache)의 가요족 (Gayo) 남성 무용수 9명이 악기 없이, ‘천개의 손’으로도 알려진 춤답게 손으로 손뼉과 가슴을 치는 사만춤 (Tari Saman)은 남성미와 박력이 넘치는 동작으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그리고 바타 민족이 환영의 의미를 담은 그들의 전통춤 토르 토르 춤 (Tari Tor-Tor)를 경쾌한 장단에 맞춰 출 때에는 시상식에 참석한 모두가 무대 앞에서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고 즐겼다. 자바 가물란과는 다르게 높고 가파른 음율의 가물란, 수마

트라의 유명한 접시춤과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힘차고도 우아한 빠당 Galombang Pasambahan 춤을 감상하다보니 어느덧 2시간이 흘렀다.

1부와 2부 시상식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공연예술단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관객들은 모두 화려한 문양과 색의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꼬바야(kebaya)나 바틱(batik)을 입고 있었는데 모두 손가락하트를 만들고 “사랑해요”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그 시간 내게 있어 “한인니 문화예술의 화합과 교류”란 문학, 공연예술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이들에게 국한되어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인니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시상식장의 모든 이들에 의해 이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현대적 감성에 녹아져 쓰인 글, 한국과 인도네시아 고유의 정서와 혼을 담은 전통 춤과 노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승화시킨 이 날의 시상식은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심고, 한국에 인도네시아를 심는 화합의 장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인니 문화예술의 화합은 세계인들에게도 가치를 인정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글로벌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 날의 시상식은 자카르타 도심 고층 빌딩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문화예술교류 활성화에 앞장서온 한인니문화연구원을 향한 인니교민사회 그리고 세계인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인니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지속적인 서포터가 한인니에 술화합이라는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정
(연구원 팀장 / 아시아태평양연구회
국제교육정책박사과정(ATMA JAYA))

톱슨 목 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4@korea.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한국생산성본부, 인도네시아 에듀테크센터 개소

교육·컨설팅부터 스타트업 육성·창업이민 지원까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해외 에듀테크센터를 개소했다.

에듀테크센터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현지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자격인증, 스마트팩토리 도입 컨설팅부터 스타트업 육성, 창업이민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1957년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생산성본부는 국가 고객만족지수(NCSI) 인증을 주된 역할로 하고, 각종 기업을 상대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수행해왔다.

생산성본부는 인도네시아 에듀테크센터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베트남, 내년 3월에는 미국에 순차적으로 에듀테크센터를 설치하고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진출한 한국기업·현지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하는 정도의 스타트업이 아니라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며 인도네시아에는 고젝·트래블로카·토코피디아·부칼라팍 등 4~5개가 있다.

생산성본부는 미국 중부의 퍼듀대를 시작으로 동부의 뉴욕주립대, 서부의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과 연계해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 관련자 등을 한국으로 데려와 기술 창업 비자(D-8-4)를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

이밖에 할랄인증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에 할랄 교육과 인증을 지원하고, 이슬람대학들과 할랄 인증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텔콤셀-의료 상담 앱 ‘할로독’, 협력 사업 실시

인도네시아 최대 모바일 서비스사이자 국영통신사업자인 텔레코무니카시인도네시아(PT Telekomunikasi Indonesia, 이하 텔콤)의 휴대전화서비스 자회사 텔레코무니카시 셀룰러(PT Telekomunikasi Selular, 이하 텔콤셀)는 14일 의료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할로독(Halodoc)’과 협력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의료 상담 어플리케이션 할로독에 신규 가입한 텔콤셀 고객을 대상으로 첫 3개월간 이용료를 5% 인하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텔콤셀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재택 검사 서비스를 제외한 할로독의 전체 서비스가



해당된다.

텔콤셀의 크리스핀 부장(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부문)은 “협력 사업을 통해 고객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할로독의 월간 이용자 수는 50개 도시에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의 병원 1,400개소, 의사 2만 명, 약국 1,300개소와 제휴하여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문화 알리는 한국문화원 견학학습 프로그램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11월 12일(화) 부디왈루요(SMA Budi Waluyo)와 알람징가(Sekolah Alam Jingga) 2개 인도네시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견학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 약 80여명과 담당교수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원의 역할, 한국의 문화, 의복,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한류열풍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시간으로 시작했다. 한국문화원 방문은 처음이라며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열중한 모습으로 발표를 경청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같이 K-드라마와 K-영화를 접하며 생긴 궁금증들을 설 새 없이 쏟아냈다.

한국소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한 한국문화체험 시간에는 참가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전통놀이, 한복입기, 그리고 한

국문화상자를 이용해 한글을 써보는 시간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병풍 앞에서 휴대폰으로 인증사진도 찍는 등 알찬시간 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 견학학습에 참가한 한지도교사는 “학생들이 K-드라마 등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한국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문화원의 견학학습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됐다”고 계기를 설명하며, “한국문화원에서 마련해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이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주재국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인도네시아의 여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2.15.까지

신고·신청 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Through post / email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총 6일 이내)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Duration of 6 days)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Apply and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참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명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인도네시아 지진 발생 올해 1만300건...작년부터 급증

2008년부터 연평균 5~6천건 ... 건물 내진설계 강화해야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지진이 1만300건에 이르는 등 작년부터 지진 발생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에 따르면 2008년~201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 평균 5천~6천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1만7천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동부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접해 있고, 국토 전역에 활화산이 120여개나 있다.

연간 발생하는 지진 횟수는 2013년 4천234건에서 점차 늘더니, 2017년에는 6천929건이었다. 특히 2018년 1만1천920건으로 전년 대비 거의 배 가까이 급증했다.

작년 9월 28일 술라웨시섬 팅루 지진으로 6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 4천300여명이 숨졌고, 작년 12월 22일에는 화산 경사면 붕괴로 높이 5m의 쓰나미가 자바섬 반딧과 수마트라섬 람뽕 해안을 덮쳐 400여명이 숨졌다.

2004년 12월 26일에는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가 이웃 국가 해변까지 휩쓰는 바

람에 인도네시아인 17만명을 포함, 총 22만명이 사망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지진 발생 횟수는 이미 1만300건을 넘었지만, 작년처럼 수백 명 이상이 한꺼번에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올해 9월 26일 암본섬과 스라섬 사이에서 규모 6.5의 강

진이 발생해 여진이 2천345차례나 발생했다. 38명이 숨지고 140여명이 부상했으며 주택 6천500여채가 파손됐다.

지난 달 15일 북말루쿠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 후 185차례 여진이 이어졌으나 육지와 거리가 멀어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료노 BMKG 지진·쓰나미 국장은 “2008년~2018년 수마트라섬부터 술라웨시, 파푸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진이 발생했다”며 “통상

파괴력을 가진 지진이 한 해 8~10건 발생하는데, 올해는 15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1980년부터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내진설계는 사상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자바섬 족자카르타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으로 5천800명이 사망했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강도·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1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CNN인도네시아가 전했다. [연합뉴스]

리보 까라와찌, 소프트뱅크와 AI·사물인터넷 솔루션 관련 전략적 제휴 합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기업 리보 까라와찌(PT Lippo

Karawaci)는 11월 28일 소프트뱅크와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과 교통 에코시스



템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리보 까라와찌의 존 최고경영자(CEO)와 소프트뱅크의 키타하라 히데부미 기술 전략 및 글로벌 사업 전략 본부장이 28일 협정서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 끈판 1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반딧 까라와찌에 개발하는 리보 빌리지 스마트 거주 지역에 관한 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실현한다.

[연합뉴스]

인니 체조 선수 “순결 잃었다는 의심받고 선수단서 쫓겨나”

산부인과서 순결 확인서 받아 제출 ... 명예 회복해 달라



▲ 체조선수 딸의 억울함 호소하는 어머니

인도네시아의 17세 체조선수가 처녀가 아니라는 의혹을 받아 동남아시아(SEA) 게임 선수단에서 퇴출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붙었다.

30일 CNN인도네시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체조선수 샤르파 아브릴라 시아니는 전날 가족·변호사와 함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녀성을 잃었

다고 의심해 코치가 SEA 선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참가하는 제30회 SEA 게임은 이날 개막해 12월 11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린다.

샤르파의 어머니는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 13일 전화해 내 딸이 남자친구들과 항상 늦게까지 어울렸다고 선수촌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치는 내 딸이 순결을 잃었다고 의심했다. 내 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내 딸은 8살 때부터 체조를 시작해 지금까지 49개의

메달을 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샤르파는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순결 확인서를 발급받아 코치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코치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더는 고통받고 싶지 않았던 샤르파는 재검사 요구를 거절하고 출전을 포기했다.

샤르파는 항의서한과 함께 순결 확인서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국가체육위원회(KONI), 체육부에 제출했다.

체육부는 “샤르파의 선수단 퇴출은 훈련에 집중하지 않아 성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선수 측 주장을 부인하면

서도 코치가 잘못했을 가능성을 남겨뒀다.

체육부는 “만약 처녀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라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것(처녀성)은 사생활과 존엄성의 문제이지, 경기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혼전 성관계도 활발히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퍼지면서 혼전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려고 형법 개정을 추진하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재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Fax
E-mail

: +62-21-797-6237
: +62-21-797-6015
: kor@f1-logix.com